서남권 거점공항 탄력…항공산업 메카 '날개' 달았다

무안공항 일대 항공특화(MRO)산단 지정 기대 효과와 전망

34만9000㎡ 특화산단 조성 계획
운항·부품·기계 정비 시장 무궁무진
차별화·접근성 높일 인프라 등 과제

무안국제공항 일대가 항공특화(MRO)산업단지로 조성되면 공항 활성화 뿐 아니라 국내외 항공정비 단지가 들어서면서 공항 활성화 뿐 아니라 무안공항 일대가 항공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항공특화산업단지와 연계한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인 전남도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가까워졌다.

◇무안공항 일대, 항공산업 메카로=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는 항공기, 엔진, 장비 등에 대한 점검, 보수·유지, 수리·개조 작업을 통해 항공기 안전성과 정시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무안군은 국토부의 이번 '항공특화산단 지정계획' 확정에 따라 공영개발방식으로 오는 2020년까지 무안공항 인근 34만9000㎡ 일대에 항공정비 전문업체들이 들어서는 'MRO 특화산업단지'를 만들고 정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 리투아니아 항공정비 업체인 에프엘 테크닉스(FL Technics)사, 국제항공정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에프앤디 등 항공기 정보서비스, 기내식 제조업체 등과도 협약이 맺어져 산단 입주업체가 확보된 상태라 한층 탄력을 밟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항공정비 산업의 경우 항공 안전과 항공기 제작, 운송, 정비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 구축과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망도 밝다는 게 전남도와 무안군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산단 조성 방안을 마련,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미래전략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4조3000억원 규모 시장을 잡아라"=글로벌 항공 수요가 늘면서 항공기 정비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남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조9000억원(2016년 기준) 규모의 국내 항공정비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4조 300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5.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항공정비사업은 운항정비, 기체정비, 엔진·부품 정비 등으로 나뉘며 1990년대 이후 비용 절감과 항공기 운영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전문화된 항공정비(MRO) 업체에 위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글로벌 시장 전망도 밝다.

엔진 MRO 시장의 경우 279억달러(2015년 기준) 규모의 시장이 5.3% 성장률을 보이며 468억달러(2025년)로 커지는 등 MRO 시장 연평균 성장세(4.1%)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부품 MRO 시장도 같은 기간 4.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제시된 바 있다. 부품 항공정비 시장의 경우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부품이 늘어나면서 주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운항 MRO 시장도 연평균 성장률이 3.7%로 제시되는 등 국내외 MRO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는 게 항공정비업계 분석이다.

국내 에어부산·제주에어·이스타·티웨이·에어인천·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운항 정비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체 정비의 경우 해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은 파악하고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 갖춰야=항공정비(MRO) 특화산업단지는 무안에만 조성되는 게 아니다. 이미 경남 사천과 충북 청주시 일대에도 추진되고 있다.

사천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시행자로 31만㎡ 규모의 부지에 1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항공업체(생산, 정비, 연구개발) 등이 들어서는 단지가 조성중이다.

청주에도 항공운송·비행훈련·정비·항공분류 분야를 주력 업종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중이다. 다만, 청주공항 MRO단지 조성사업은 중간에 사업 파트너였던 KAI와 아시아나가 불참하면서 좌초된 상태다.

또 진주·사천지구에도 오는 2021년까지 각각 2200억원을 투입, 항공, 바이오·케미칼, 전기·기계·금속·화학 제조업체가 들어서는 경남 항공 국가산단도 조성되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산단 활성화 뿐 아니라 무안공항 일대를 항공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무안공항과의 연계성, 중국 ·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활용하는 한편, 항공부품 제조업과 정비센터, 소형항공기 제조업, 항공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클러스터화하고 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항공정비특화산단 일대에 드론 · 항공부품 제조 및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드론 지식산업센터 등을 인근에 조성하는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을 추진중인 것도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남의 농수산품과 공항 물류기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농산품, 화훼 등을 저장·가공·유통하는 농수산수출기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무안공항 접근성 개선과 활주로 연장 문제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고속도로만 뚫려있을뿐 대중교통망이 엉망이고 .공항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신규 노선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기종 유치가 급선무인데 현재 활주로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 미래전략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애국과 통합을 강조하며 기득권의 이념 대립을 정면 비판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날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 전체가 아닌 자신이 속한 진영만을 위하는 태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념식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한 것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정치권의 '막말 사태'로 이념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통합과 애국을 강조하고 이념대결을 비판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추념사 전체에서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11번, '진보'와 '보수'가 각각 9번씩 사용됐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국가'로, 총 26번 등장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념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을 떠올리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라며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중시해 온 것으로 여겨졌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튼튼한 안보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이분법적인 이념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패싱' 없었다…김정숙 여사, 황교안 대표와 악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악수 패싱'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재회해 악수하며 인사했다.

김 여사와 황 대표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만났다. 다른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도착해 있는 가운데 추념식 시작 시각이 다 돼 문 대통령 부부도 행사장에 들어서서 참석자들과 인사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과 먼저 악수하며 인사한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국회 관계자가 앉은 구역으로 이동해 역시 인사를 나눴다.

맨 앞줄에 자리한 김원웅 광복회장과 악수한 문 대통령은 그 뒷줄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발견하고는 팔을 뻗어 두 사람에게도 악수를 건넸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과 악수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여야 대표와도 인사했고 김 여사는 그 뒤를 따랐다.

이 대표와 먼저 악수한 김 여사는 황 대표와도 눈을 맞추며 웃는 얼굴로 악수와 함께 인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도 악수했다. 김 여사와 황 대표는 지난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악수하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한동안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연합뉴스